

바노이, 신명기, 강의 4

© 2011, Robert Vannoy 박사,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모자이크 저자 지원 설문조사

검토

지난 주 “신명기의 저자와 날짜” 인 로마 숫자 II 아래에서 우리는 비판적인 접근 방식을 조사했습니다. “D”는 “다양한 방향에서 고전적인 벨하우젠 입장에 대한 도전”입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621년 날짜를 포로기 이후의 시기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621년 이전이지만 군주제 시대의 옹호자”였으며 Welch와 von Rad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은 또한 군주 이전 시대였으며 왕국 시대보다 더 일찍 추진했지만 모세 시대까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E. 로빈슨(E. Robinson)과 R. 브링커(R. Brinker)는 기본적으로 신명기 편집의 배후에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이론을 전개합니다.

4. 신명기의 모자이크 연대를 옹호하는 사람들

1. 초기 모자이크 지지자 설문조사

그래서 우리는 4장, “신명기의 모세 연대를 옹호하는 사람들” 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확실히 성서 자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이 이름들만 언급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19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제임스 오르(James Orr)는 1906년에 구약의 문제를 썼고 기본적으로 신명기의 모세 기원을 주장했습니다. H. M. Wiener는 1912년에 한 권, 1920년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1912년에 쓴 책은 오경 연구라고 불렸고, 1920년에 쓴 책은 신명기의 주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Wiener는 모세의 기원을 옹호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서 신명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J. Ridderbos는 1950년과 1951년에 두 권의 신명기 주석을 썼습니다. 그것은 네덜란드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최근 성경 연구생 주석 시리즈에서 Zondervan에 의해 번역되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논평 시리즈의 영어 번역입니다. 네덜란드 주석의 대부분은 1950년대, 60년대 초반에 작성되었으며 점차 영어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비. 최근 모자이크 저자의 옹호자

J. Ridderbos 에 대한 의견입니다 . J. Ridderbos -- 리더보스(Ridderbos) 라는 이름은 아마도 번역된 주요 작품인 바울 신학 개요(An Outline of Paul's Theology)를 쓴 네덜란드의 신약학 교수인 헤르만 리더보스(Herman Ridderbos) 의 작업과 몇 가지 주석을 통해 여러분에게 친숙할 것입니다. Herma

n Ridderbos는 J. Ridderbos 의 아들이었고 , 아버지인 J. Ridderbos 는 구약학 교수였습니다. 나는 다른 수업에서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NH Ridderbos 이고 다른 하나는 HN Ridderbos 였습니다 . 허먼은 신약학 교수였으며 그는 대부분의 영어권 사람들에게 친숙한 사람입니다. Niko는 구약학 교수였고, J. Ridderbos 도 구약학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공부한 사람은 Niko Ridderbos 였습니다. 그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인 J. 리더보스는 모세가 신명기의 저자임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역시 네덜란드인인 GCH Aalders가 구약성서의 서문을 썼는데 아직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오경에 대한 그의 짧은 소개가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 그는 모자이크 기원을 옹호합니다.

OT Allis는 이 나라에 오기 위해 수년 동안 프린스턴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나중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초기에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이것은 1943년에 쓰여진 오경 비평을 잘 다룬 것입니다. 당신은 제2차 세계 대전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다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EJ 영(EJ Young)은 구약성경 서문을 썼는데, 초판은 1949년에 출판되었으며 나중에 개정되어 1960년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신명기의 모세 기원을 옹호했습니다.

최근에는 RK 해리슨이 1969년에 발표한 대규모 구약 입문에서도 신명기의 모세 저자임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이름을 부여하는 목적은 이 모세의 저자가 공격을 받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내내 모세의 입장을 옹호해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들이 모두 거의 동일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Aalders와 함께 그가 “모자이크 이후” 문구라고 부르는 몇 가지 문구를 여기저기서 허용했지만, 특히 모세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있는 신명기의 끝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 나도 이의가 없습니다. 책이 완성된 후 책에 첨부되었습니다. 그러나 Aalders는 여기저기서 그가 포스트 모자이크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다른 문구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은 모두 매우 보수적입니다.

씨. 오경은 보수 서적을 결정하는 기본 입장이다

학생 질문: 그러면 오경의 모세오경 저자가 보수적인 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근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바노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이 중 어느 정도를 모자이크 이후의 자료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덜란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 단계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Aalders는 모세 오경의 저자로서 매우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JEDP 이론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자이크 이후의 것들 중 몇 가지를 허용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의 후임자는 Niko Ridderbos 였는데 ,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모세 오경의 출처를 허용했으며 아마도 일부는 오경이 초기 왕국 시대에 완성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JEDP를 도매로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Aalders보다 훨씬 더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지금 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Cornelius Helmon 이라는 사람입니다 . 그는 JEDP 접근법 전체를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견해를 성경에 대한 복음주의적 견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 단계를 거치면 3세대에 걸쳐 보수적 입장에서 완전히 진보적인 입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 이만큼 문을 열고, 그다음에는 더 많이 열리면서 원래의 위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매우 복잡하고 복잡합니다. 그 이면에는 철학적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지적 무결성에 대한 지적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없는 질문으로 시작하므로 이 시점에서는 양보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그 배후에 있는 것이 성경의 기본 견해입니다. 당신은 성경에 대한 견해를 어디서 연습니까? 당신은 성경 자체가 주장하는 바, 즉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 가지셨던 태도로 성경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연역적 과정 또는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연역적으로 견해를 얻거나 이 모든 문제를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귀납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경이 신뢰할 만하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방법론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문제나 저 문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느끼고 그것이 지적인 성실성의 문제라고 느낍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헬몬의 기독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그의 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들의 접근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 모자이크 저자임을 뒷받침하는 기타 도서

당신의 목록에는 없지만 그것에 추가해야 합니다. 언급할 책이 몇 권 더 있으므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GT Manley는 1957년 에 The Book of the Law: Studies in the Date of Deuteronomy 라는 책을 썼습니다 . 그건 당신의 참고문헌에 있어요. 나는 돌아와서 그 책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B. Halwerda 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아직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페이지의 “ 신명기의 예배의 중앙화” 아래 B. Halwerda , 즉 네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네덜란드어로 된 제목은 주님께서 선택하실 곳입니다 . 그는 신명기 12장의 이 문구와 벨하우젠 이론의 핵심인 중앙 집중화 문제에 대한 그 문구의 의미를 논의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왕조약(The Treaty of the Great King)을 쓴 메러디스 클라인(Meredith Kline)도 있습니다. 그의 책은 4페이지의 신명기 및 조약 형식, The Treaty of the Great King: Covenant Structure of Deuteronomy, Studies and Commentary, 1963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서 중 하나인 Peter C. Craigie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과정의 소개 부분에서 읽게 될 내용입니다. 1976년에 출판된 신명기에 관한 신국제구약주석에서 그는 모세의 기원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입장을 주장하는 가장 최근의 상세하고 탄탄한 학문적 논평입니다.

JA Thompson은 모자이크 날짜를 뒷받침합니다. 나는 돌아와서 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그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의 최종 형태는 포스트모자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McConville은 기본적으로 모자이크 기원을 주장합니다.

이자형. 신명기의 모자이크 기원에 관한 최근 연구

이제 그 목록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명기 질문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이 책의 모세오경 기원을 입증하는 데 있어 각자의

작품을 보완하는 네 사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해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세기 동안 논쟁이 있었지만 지난 25년 동안 - 아주 최근의 McConville의 책과 같은 경우에는 - 모자이크 기원에 대한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높이는 경향이 있는 새로운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 제 생각에는 함께 작업한 네 사람이 JEDP 이론 전체, 특히 신명기의 위치를 재고할 수 있는 강력한 사례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인 Halwerda입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벨하우젠의 이론과 관련하여 예배의 중앙집중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특히 벨하우젠 이론의 핵심 장인 신명기 12장의 해석을 논한다. 그것이 내가 여러분이 12장을 번역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보길 바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앞으로 1~2주 후에 수업 시간에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Halwerda는 중앙 집중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로, GT Manley는 그의 저서 전체 제목인 *The Book of the Law: Studies in the Date of Deuteronomy*에 있습니다. 그는 중앙 집중화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처리하지만 특히 JE와 D, 그리고 P 법률 코드 사이의 개발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데 강력합니다. 벨하우젠 이론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법전은 그들 사이에 발전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소위 "JE", "D", "P"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자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비교하고 발달 이론의 수많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인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Manley는 그의 책에서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Meredith Kline입니다. 메레디스 클라인의 강점은 전혀 다른 관점이다. 그는 신명기의 문학적 형식을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그는 특히 히타이트 조약 본문과의 유추의 관점에서 그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며, 히타이트 조약 본문과 신명기의 구조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히타이트 조약 문서의 날짜는 대략 모자이크 시대로 되어 있으며 확실히 기원전 600년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클라인의 입장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용하는 것은 신명기가 표현하는 바로 그 시대에 성경 외의 비유를 찾아 모세의 기원을 주장하기 위해 실제로 "형식 비판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그것에 대해 좋은 사례를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꽤 강력한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책의 구성에 대한 모자이크 날짜를 증명하기 위해 그런 주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짜에 적합하고 모자이크 날짜를 지원하는 모델을 확실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인 고든 맥콘빌입니다. 신명기의 율법과 신학. 이제 기본적으로 McConville의 책에서 D가 JE와 관련되거나 D

가 P와 관련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오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법과 관련된 법을 보는 대신 McConville은 주로 신명기의 신학을 독특하게 반영하는 신명기의 법에 중점을 둡니다. 그는 이 모든 법 뒤에는 신학이 있으며 법은 신학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의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당시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신학을 찾는 것입니다. 삶.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는 율법 뒤에는 그러한 종류의 상황을 반영하는 문제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려는 상황과 관련된 신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가 모세 시대에 적합하다고 말하는 책 뒤에 숨은 신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콘빌은 신학적 관점에서 신명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Kline은 형식에 중요한 구조적 관점에서 이를 살펴봅니다. Wellhausen 이론을 살펴보고 그런 종류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Manley를 만나보세요 . 예배 문제의 중앙 집중화를 담당하는 Halward를 만나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명기에 관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서로 보완하여 모세의 기원을 재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참고문헌 5페이지를 보면 “신명기의 예배의 중앙화” 라는 말이 있습니다. Kundall 이 쓴 그 기사 , “성소: 특히 신명기와 관련하여 포로 이전 이스라엘의 중앙 및 지역.” 도움이 되는 글이네요. 그리고 McConville 2장: “제단법과 컬트의 중앙화”. Wenham은 1985년 Themilios 에서 ”

신명기의 날짜: 구약 비평의 핵심”이라는 다른 기사를 읽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유용한 세 가지 기사입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방금 나온 6 페이지의 세 번째 항목에 관심을 끌 수도 있습니다 . 뉴저지 폴. 이제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습니다. 1988년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오경 비평의 아르키메데스적 관점” 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신명기와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본적으로 모자이크 기원을 주장하는 전체 논문은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는 약 2주 전, 이 강좌가 시작되기 직전에 사본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네 사람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Kline과 McConville을 읽고 있습니다. 나는 Kline의 주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 Kline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Halward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나는 McConville이나 Manley와 함께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McConville을 읽을 것입니다. Manley는 아쉽게도 절판되어 사용이 어렵지만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III. 신명기의 언약형식과 역사적 의미

A. 이 책의 구조적 완전성은 종종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제 개요에 있는 로마 숫자 III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신명기의 언약형식과 역사적 함의” 이다. 이제 내가 로마 숫자 III 으로 말하려는

내용의 대부분은 메러디스 클라인의 대왕 조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A”는 “책의 구조적 무결성에 종종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입니다.

벨하우젠은 신명기의 원래 핵심이 12~26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1~11장과 27~34장은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책의 원래 핵심은 모자이크가 아니었고, 물론 그것은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책에는 통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코어는 12~26개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되었습니다. 즉, 기원전 621년 이후 Kline은 Adam Welch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621년 이전 날짜의 옹호자들과 논의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군주제 기간 동안 Kline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Welch는 책 전체에서 혼란을 발견했지만 특히 프레임워크는 절망적으로 무질서해서 편집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질서가 혼란에 도입되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대한 Adam Welch의 평가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구조적 통일성이나 질서가 없습니다. 그는 편집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찾지 못한 질서가 어느 정도 도입되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학자들이 자주 논의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 책의 “두 가지 서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들 저술가들 중 다수는 신명기의 서문이 두 개라고 말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이 하나 있고, 5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이 또 있다고 합니다. 서론이 두 개라 중복된다고 합니다. G. 어니스트 라이트(G. Ernest Wright)는 해석자 성경 시리즈에서 신명기 주석을 썼는데, 이는 1960년대의 매우 표준적인 비평 주석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해석자 성서 제2권인 라이트(Wright)는 이 두 서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신명기가 실제로 오경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마틴 노스가 “신명기적 역사”라고 부르는 것의 첫 번째 책이라는 마틴 노스가 원래 주장했던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신명기부터 열왕기하(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끝까지 이어집니다. 신명기는 포로기 이후 말기에 한 개인이 기록하거나 편집한 자료집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신명기가 신명기 역사의 첫 번째 책이고, 신명기 1~4장은 신명기 역사 전체에 대한 소개인 반면, 5~11장은 신명기만의 서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책의 구조적 완전성이 종종 의문을 제기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그러한 것들 중 일부를 언급했습니다. 즉, 이러한 비판적 학자 중 상당수가 책을 찾아보지만 책의 일관성 있는 구조를 찾지 못합니다.

신명기의 역사는 신명기부터 열왕기 끝까지이다. 물론, 그것을 신명기적 역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역사적 서술을 통해 반영되는 신학이 흥미롭게도 신명기의 신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신명기가 621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역사에 부과된 그런 종류의 신학적 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역사가 그 시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책이 기원전 621년까지 기록되지 않았다면 사사기의 책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사기 전체 기간이 신명기의 신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거나 설명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책들에는 매우 실제적인 신명기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을 속한 위치에 놓으면, 모세 시대에는 그 모든 책들을 통해 신명기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 신명기의 구조적 패턴에 대한 폰 라드의 견해

좋아요, 당신 시트의 "b"는 1938년 Hexateuch 문제에서 신명기의 구조적 패턴의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시킨 Gerhard von Rad입니다. 나는 우리가 Wellhausen 입장에 대한 도전을 볼 때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폰 라드는 621년 이전의 연대를 주장했지만 여전히 군주제 시대에 속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의 주장의 일부가 책의 구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그의 나이 많은 비평 학자들, 심지어는 그 책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한 일부 동시대 사람들과도 구별되게 합니다. 그는 육학 문제 (Problem of the Hexateuch) 26, 27페이지에서 책 전체의 구조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나는 이것을 앞서 언급한 것 같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형식 비평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도 신명기의 기원에 대한 그러한 그림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것입니다. 신명기가 유기적 전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문학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지층과 부가물을 구별할 수 있지만, 형식의 문제에서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분할할 수 없는 통일성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됩니다.”

그는 구조적으로 이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육교 문제(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이 1장부터 11장까지 시내산 사건에 대한 역사적 제시와 그 사건들과 관련된 편집적 자료를 구조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파라네틱 ”, 그게 뭔지 아세요? 파라네틱 (Paranetic)은 권고라는 뜻이다. 그리스어 paranesi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 신명기에는 그런 종류의 설교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고를 줍니다. 그런 다음 조약의 두 번째 부분은 법률,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 26장은 법적 자료입니다. 그리고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언약의 인침을 말하고, 신명기 27장 이하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말한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책 전체를 비판적으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 어떤 상황이 이런 형태를 낳게 될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이 네

부분에서 우리는 JE와 함께 시내 전통에 반영된 동일한 축제와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제의 의식이었던 것의 기본 특징을 다시 한 번 인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보는 방식으로 그는 구조를 보고 형식 비판적으로 책에 반영된 이런 종류의 문학적 형식을 만들어낸 일종의 제의 축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그 견해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이 점에 주목하게 된 주된 이유는 von Rad가 이 책이 혼란스럽다는 비판적 학자들의 합의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니요, 구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에서 소스비판적 접근방식과는 다르지만, 서로 다른 전제를 활용하면서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씨. 메레디스 클라인: 대왕의 조약

1. 신명기 계약 갱신 문서입니다

좋습니다. “c” Meredith Kline은 성경의 완전성을 존중하는 형식 비평 방법론을 활용하여 신명기의 해석과 날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었습니다. 이제 개요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가 “c” 아래에서 하고 싶은 것은 Kline의 주장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은 Kline의 논문에 대한 진술입니다. 대왕 조약 28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여기에서 옹호되어야 할 입장은 신명기가 전체 구조에서 모세

시대의 종주권 조약의 고전적인 법적 형식을 보여주는 언약 갱신 문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문장이 당신에게 그의 논제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2. 클라인의 신명기 개요

“2”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논문 서문입니다. “2”는 “클라인의 신명기 개요”입니다. 클라인은 책을 살펴보면서 책을 다섯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1:1에서 5까지의 서문; 둘째, 역사적 서문, 1:6부터 4:49까지의 언약의 역사; 셋째, 규정-5:1부터 26:19까지의 언약 생활. 그것은 기본적으로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이제 그것은 5:1부터 11:32까지 두 개의 하위 섹션으로 나뉩니다. 즉, 5장부터 11장은 “큰” 또는 “기본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고, 언약에 충실하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해야 하는 기본 의무입니다. “B”는 보조 계명입니다. 이것이 자세한 규정이고,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다음 넷째, 제재 조치입니다. 계약 비준 27:1부터 30:20; 그것은 축복과 저주와 다른 것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31~34까지는 왕조의 처분, 즉 언약의 연속성이다. 이는 모세의 여호수아 계승, 즉 왕조의 계승을 위한 규정입니다. 이것이 Meredith Kline이 책에서 본 구조입니다.

제가 K. Kitchen에게 꼭 읽어보라고 한 글은 실제로 Nickelson이 쓴 이 책에 대한 리뷰입니다. Nickelson은 전체 언약 비유를 거부하고 Kitchen은 Nickleson의 거부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히타이트 조약 문서의 표준 요소

세 번째는 “히타이트 조약 문서의 표준 요소”입니다. 우리는 조약 본문과 신명기의 구조 사이의 이러한 비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약문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히타이트 조약을 보면 모두가 거의 동의합니다. 그 중 20개가 있고, 그들은 꽤 정기적으로 이런 종류의 구조를 따릅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위대한 왕을 소개하는 서문, 그의 이름, 칭호 등을 제공합니다. 2) 역사적 프롤로그는 대왕과 그의 가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전 역사를 요약합니다. 3) 규정: 이는 가신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이는 가신에 위치하며 대왕이 가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대왕에 대한 의무감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종주국, 즉 왕은 봉신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보답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기본약관과 세부약관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조항은 충성의 기본 의무이며, 세부 조항에는 대왕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종류의 구체적인 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성소에 조약문 기탁

다음으로, 모든 문서에는 아니지만 때로는 가신의 성소에 조약 문서를 기탁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기적인 독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특정한 경우에 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본문을 읽어 주도록 합니다. 이는 모세가 성막에 율법 사본을 보관한 것과 절기 때 낭독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장막의. 그러나 4) 증인; 5) 저주와 축복. 증인은 계약, 즉 언약을 목격하는 신입니다. 저주와 축복은 이 신들이 가신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5. 조약문서는 조약의식의 대본이었다

그것은 모세에게서 나왔다는 이 책의 표현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언약으로서 긴장감을 갖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히타이트 조약과 비슷하지만, 이 책은 일련의 주소로 제시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클라인이 29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은 조약 문서가 조약 의식의 대본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본은 악곡의 가사와 마찬가지로 언약의식의 대본에도 때로는 종주국의 선언뿐만 아니라 가신의 응답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명기를 조약 본문으로 식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모세의 의식용 말씀으로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자이크 연설의 관례적인 개념은 형식적 구조가 고정된 의식-법적 전통을 밀접하게 따르도록 수정된 자유롭게

주문된 작별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확실히 고정관념적인 전례 낭송이 아닙니다. 즉,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책이 언약 갱신 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배경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 대한 충성을 새롭게 하여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언약 갱신 문서로 이해하는 것은 모세의 일련의 연설로 구성된 책 자체의 표현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von Rad의 접근 방식과 형식적인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에 관한 한 von Rad는 책 자체에 표현된 책의 무결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도로 이론적인 제의 파생론을 갖고 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제가 지난 수업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수아 시대에 세겜에서 제사 의식이 있었고 그 의식의 전통은 레위 사람들에 의해 수년과 세대를 거쳐 이어져 왔다고 느낍니다. , 주기적인 언약 갱신 사건 이후에 꽤 늦게 신명기의 형식이 고안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겜 의식과 그 의식과 그 사상이 레위인에 의해 보존되었고 결국 신명기의 구조가 그것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Kline과 von Rad는 둘 다 책의 구조를 볼 때 형식 비판적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Kline은 텍스트의 무결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폰 라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분만 쉬자 .

6. 신명기는 고대 조약의 형태로 시작됩니다

6번은 “신명기는 고대 조약이 형성되면서 시작됩니다.” 입니다. 클라인의 대왕 조약(The Treaty of the Great King) 30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는 고대 조약이 시작된 것과 정확히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신명기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 말씀이니라.’ 책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유대인의 관습은 이 책을 즉시 조약 문서로 식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주권자이신 주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사람인 모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대리자요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는 종주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성서 외 조약의 전문에 해당합니다. 조약의 전문에는 대왕이 자신을 밝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의 이 부분은 전문에 해당합니다. 성경의 조약들은 또한 이 언약에 따라 대변인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으로 식별합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라” 고 했습니다.

7. ‘두 서론’ 문제를 해결하는 클라인의 신명기 접근 방식

좋습니다. 7번은 ” 두 서문’ 문제를 해결하는 신명기에 대한 클라인의 접근 방식입니다.”입니다. 그는 페이지 하단인 30페이지에서 “신명기의 통일성에 관한 주요 문제는 1장부터 4장까지와 5장부터 11장까지의 ’ 두 서문 ’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조금 논의합니다. Kline은 “두 서문은 신명기의 실제 구조를 제거했습니다. 역사적 프롤로그는 정기적으로 전문을 따르고 조약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 1:5부터 4:49까지가 그러한 역사적 서문으로서 훌륭하게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인이 말하는 것은 신명기를 언약 구조로 이해함으로써 두 서문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5장부터 26장은 조약의 규정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종주국의 세 번째 부분 또는 부분입니다. Von Rad는 5장부터 27장까지 포함하고 1장부터 4장까지 시작하는 방대한 역사 조사를 기록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은 5~11장을 1~4장에서 분리하여 12~26장의 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5~11장은 12~26장과 마찬가지로 언약적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함께 선언합니다. 종주국의 요구: 기본 의무와 세부 의무. 앞의 섹션은 일차적 또는 기본적 수요의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구조를 제시합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대량 내용을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요구 사항을 추가합니다. 그는 나중에 32페이지 하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규정의 성격은

설교적이거나 편집증 적인 스타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의 신명기 규정의 성격은 어떤 엄격한 문체 방식을 따른 신명기 저자의 말의 부정확성을 폭로합니다.” 그는 “이러한 특징은 일부 조약 본문의 조약 규정 형태와 유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문서는 모세가 개인적인 작별이기도 한 갱신식을 거행하는 데에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충분히 활용될 것” 이라고 말했다.

8. 신명기 5-26장 조약 양식의 규정

8번. 8번 5장부터 26장까지가 조약 규정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약은 업데이트되었으며, 업데이트될 때 관례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5장의 안식일 계명에서 신명기 5장 15절의 안식일 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1절, 신명기 5장 15절과 비교해 보면,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셨느니라.” 모세가 말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은 창조의 6일에 기초를 두고 있다. 출애굽기 20장: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일곱째 것에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규정은 동일하지만 명시된 동기는 다릅니다. 이는 조약 갱신의 특징이었던 기능을 이 새로운 세대에 업데이트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9. 신명기 27-30장 언약 비준을 위한 수단

좋습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는 9번입니다. 신명기 27장부터 30장은 조약이 언약 비준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표준 형식을 따릅니다. 26개 이하의 내용을 추가된 자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책의 원본 형식의 일부가 아니라 이후의 추가 항목 또는 부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약 패턴의 구조적 연속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장부터 30장까지는 언약에서 승인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약문의 표준적인 특징이었습니다. 27~30장은 클라인의 관점에서 분석되는 방식입니다. 더 자세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7:1-26 가나안에서 승인 의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거기서 율법을 쓰고 인준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축복과 저주는 28장에 있습니다. 언약의 맹세는 29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조약 분석에 기초한 이 책의 구조적 완전성과도 잘 들어맞습니다. 그게 9번이에요.

10. 신명기 31-34 장 최종 준비 [증인의 노래 등)

10번: 31장부터 34장은 단지 부록이 아니라 언약의 필수적인 특징으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를 좀 더 자세하게 최종 정리로 포함하면 31:1-29이 증거의 노래입니다. 증인은 조약 형식의 구조적 특징이었습니다. 31:30부터 32:37까지 증인의 노래를 듣습니다. 차이점은 히타이트 문헌에서는 신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신론적 관념이 없지만, 당신이 규정에서 벗어나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하면서 다가올 날을 고대하는 증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는 책의 큰 부분이자 전체 구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32:48부터 33:29까지의 유언장에서 지파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34:1-12에서 왕조의 계승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넘어가는 것으로, 이는 실제로 전체 갱신 행사의 기회였습니다. 왕조 계승 시점에 조약이 갱신되었는데, 바로 이것이다. 모세는 권위자이며 그는 여호수아에게 계속되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맨틀을 넘깁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히타이트 조약 형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조적 아이디어가 전체 문서의 무결성에 추가됩니다.

Dawn Cianci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

14

15